

송년인사 送年人事를 드립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문화방송’ 사우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인태입니다. 온 지구촌이 미증유未曾有의 몸살을 앓는 가운데 신축년辛丑年이 저물어 갑니다. 건강하게 이 고비를 넘기고 계시는 사우회원 여러분이 정말 고맙습니다.

푸르름과 함께 했던 의정부 문화동산의 단합대회, 한 해를 보내면서 모두 모여 안부를 묻고 인사 나누던 송년모임, 각종 동호회 행사 등이 올해도 하릴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우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저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존경하는 사우회원 여러분 올해 사우회는 창립 31주년을 지나고, ‘영광의 선두 주자’ MBC는 창사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근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전反轉의 발판을 마련해가는 MBC 박성제 사장과 임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에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런 MBC사우회원 여러분 어느덧 사우회장으로서 제 임기의 마지막 해가 됐습니다. 지난 삼년 동안 마음으로 성원해주시고 발전기금 등으로 격려해주신 여러분의 정성을 무슨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 고맙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나고 보면, 자연의 순리順理를 거스른 자는 없습니다. 파종播種과 추수秋收, 그것은 거대한 순환의 연속입니다. 파종은 씨를 뿌리는 시작이고 추수는 열매를 거두는 마무리지만 그 시작과 마무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순환체로서 이를 통해 모든 삶은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우회 또한 그 질서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2021년이 지나가려면 아직 한 달 여가 남았지만 사우회보의 발행 일정 때문에 지상紙上으로나마 송년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태민안國泰民安하고 사우회원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전 기금을 내주신 분들(9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강영구(고문) 200만원 • 노영일(보도) 50만원 • 안호선(관리) 20만원
- 박성제(보도) 100만원 • 김종복(편제) 30만원 • 김점용(편제) 10만원
- 정재순(기술) 100만원 • 권영삼(관리) 20만원 • 하순봉(보도) 10만원



강영구



박성제



정재순



노영일



김종복



권영삼



안호선



김점용



하순봉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

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원고를 기다립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나이 들어 눈도 침침하고 기억도 전 같지 않은 분들이 뭔가 자기 얘기를 글로 표현한

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SNS를 통해 많은 글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그 일부를 가져다 신기도 합니다. 그

렇다고 그분들의 글만 실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우회원들이 읽고서 공감하거나 최소한 수긍할만한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글은 내용이 무엇이든 신고자 합니다. 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한 일들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 용지 한 장 반이면 됩니다. 가급적 읽을거리가 풍부한 사우회보를 만드는데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장 올림.

www.fbc.or.kr



MBC와 늘 함께하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품격있는 방송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로서 MBC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최고의 공영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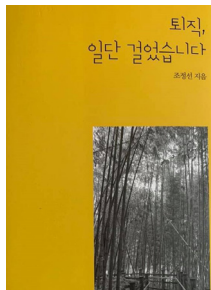
우리나라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콘텐츠진흥, 학술지원,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동/정



▶조정선(편제)

9월 『퇴직, 일단 걸었습니다』를 출간했다. 퇴직 후 해파랑길(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750km를 27일 동안 친구와 같이 걸으며 생각한 일들을 적었다.



▶김용현(미주)

10월 13일 미국 LA에 있는 용수산회관에서 LA총영사를 비롯해 8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현의 평화로 가는 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차인태 회장은 영상메시지로 축하 인사를 보냈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채정수(편제)

1982년 TV제작국 미술부 입사. 영상미술국 미술부장, 미술국장(CG실) 역임.



이혁재(보도)

1987년 보도국 입사. 영상편집부, 스포츠영상부, 시사영상부장. 2018년 퇴직.



양영석(관리)

1991년 총무국 입사. 관재부, 관계회사부, 자산개발국 등 근무. 2020년 퇴직.



우경민(보도)

1985년 입사. 보도국 뉴스영상콘텐츠부, 공영미디어국 등 근무. 2021년 퇴직.



정찬래(보도)

1987년 보도국 입사. 영상디자인국 영상부장, 영상미술국장 역임. 2021년 퇴직.



이정식(편제)

1991년 시사교양국 입사. 기획조정본부 관계회사실장, 현재 제주MBC 사장.



김영철(관리)

1984년 입사. 홍보부, 기획조정실, 뉴스영상콘텐츠국 등 근무. 2021년 퇴직.



김상철(보도)

1984년 입사. 경제과학에디터, 워싱턴특파원, 논설위원 등 근무. 2019년 퇴직.



이상길(편제)

1984년 편성국 입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역임.



안종환(기술)

1986년 기술국 입사. 보도기술부, 기술연구소, 감사실 등 근무. 2021년 퇴직.



김동효(기술)

1987년 입사. 라디오국, 사업국, 기술인프라국 등 근무. 2021년 퇴직.



장준성(보도)

2006년 입사. 보도국 사회부, 정치부 등 근무. 현 외교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



김윤섭(기술)

1986년 기술국 입사. 뉴미디어기술국장, 신사옥건설국장, 현재 방문진 사무처장.



노혁진(편제)

1986년 편성국 입사. 편성국장, 라디오국장, 뉴욕PD특파원, 전 MBC플레이비 사장.

“소설처럼 영화처럼” -故 김병덕 선배를 추모함



장명호(편제)

누구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결국 허물어지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죽는 과정은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지만, ‘내 중심에 세상이 존재한다’며 살다가 생을 마감한 김병덕 선배를 생각합니다.

인사동 시절, 음악PD 후보(예비?) 합격자로 이종환PD와 함께 입사했다는 고인은, 한참 후배인 나의 눈에도 특별한 인상을 남긴 선배였습니다.

남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턴테이블에 LP판을 크게 틀어놓고 "이 음악 어때? 좋지? 이게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이야" 그런가 하면 "로자문데(Rosamunde)를 모르면 슈베르트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야"라며 음악에 도취하곤 했습니다.

슈베르트는 들어 봤어도 <로자문데>는 몰랐고 베토벤 교향곡은 알아도 말러 교향곡을 몰랐던 그 시절, 그는 수십 년을 앞서가는 음악 애호가였습니다.

음악 뿐 아니라 술 또한 'MBC 3대 호주가'로, 커피를 안주삼아 소주 서너 병을 단숨에 비워버리는가 하면, 어느 날인가 눈이 내리면 눈이 온다고 훌쩍 나가 버리

고, 비가 오면 이런 날 어떻게 사무실에 있냐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누구라도 데리고 나가 소주를 들이키고 들어오니 어떤 부장인들 좋아할 수 없는 대략 난감한 PD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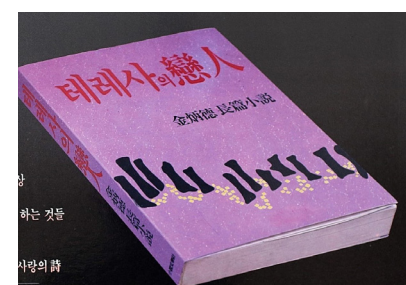
<알 파치노>를 연상케 하는 외모에 스트라이프 셔츠를 걸치는 멋을 알고, 음악, 책, 영화가 취미고 생활이라고 말하던 그는 결국 영화처럼 소설처럼 음악 속에서 너무나도 고달픈 삶을 마감했습니다.

고인의 30대 이후의 삶은 <테레사>라는 불멸의 연인을 만나면서 비껴 갈 수 없는 운명적 사랑과, 그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의 삶과 얽히고 설키고 소용돌이

쳤던 흔적들이 그의 자전적 소설 <테레사의 연인>과 <MBC야화 내청춘의 비화>에 절절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가 부인도 자식도 연인도 없이 파주의 한 성당 <레지오>의 돌봄을 받다가 무연고자의 신분으로 쓸쓸히 떠났다는 게 영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故김병덕 선배를 추모합니다.



경조사항

팔순: 하순봉(보도) 42.10.8 하영석(보도) 42.12.8 김봉성(업무) 42.12.12
윤현곤(대구) 43.1.1 이창식(편제) 43.1.8 양경운(기술) 43.1.9
김광백(보도) 43.1.12 김충남(기술) 43.1.21

고희: 박춘평(편제) 52.10.3 이명순(ANN) 52.10.3 최병규(편제) 52.11.8
권상규(관리) 52.11.16 강성주(보도) 52.11.17 박성문(보도) 52.11.24
전용학(보도) 52.11.28 이석현(편제) 52.12.19 박두식(관리) 53.1.15
송창의(편제) 53.1.23 정명환(대구) 53.1.24 김상기(보도) 53.1.27

회갑: 서인성(보도) 61.10.22 김윤섭(기술) 61.10.23 노혁진(편제) 61.11.1
권호식(기술) 61.11.5 남상호(기술) 61.11.27 김인홍(기술) 61.11.27

결혼: 이명숙(편제) 아들 10.2 박승기(관리) 딸 10.2
남상호(기술) 아들 10.2 신동석(관리) 아들 10.2
김현종(편제) 딸 10.16 정재순(기술) 아들 10.16
박은숙(관리) 아들 10.23 임인숙(관리) 딸 10.23
김환균(편제) 아들 10.31 배수한(관리) 아들 11.7

부음: 권호식(기술) 모친상 9.15 이상범(관리) 장인상 9.19
이학규(편제) 모친상 9.27 지수환(관리) 장인상 10.8
박성희(관리) 장모상 10.15 정화용(관리) 모친상 10.25
최근수(편제) 장모상 10.25 장준성(보도) 부친상 11.3

연회비

2020년: 정흥숙(완납)
2021년: 권혁화 권황택 김경일 김억동 김점용 노홍식 박성배 유민환
이두표 이명숙 정동영(완납) 정영수 주규만 최경미
최양묵(완납) 편일평(완납) 하순봉(완납) 황중휘 황효성

2022년: 김규홍 김귀현 김일중 김종창 정승호
2023년: 손도정(완납) 2024년: 천영숙

주소 / 전화번호 변경

편제: 김종복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길20
박흥영 서울 마포구 백범로199
이연현 전남 나주시 스마트1길 72-9 빛가람동
이성호 서울 은평구 불관천길416
채규태 강원 속초시 만리공원길6
황선길 경기 파주시 가람로109

보도: 박래양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102번길12
심원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322
이형관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38
정동영 서울 강남구 논현로205
차경호 서울 서초구 태봉로2길43
최남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109

기술: 김학정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6길 43
최현곤 경기 과천시 별양로164
최희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1751
홍성추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흥북로 49번길 27

관리: 권선장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67
김금봉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164
김연두 서울 강남구 논현로205
손원록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895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병덕(편제)
9월 16일 별세. 향
년 83세. 1965년
입사. 라디오 편성
국, 라디오 제작국,
FM방송부 등에서
PD로 근무. 1978년 퇴사.



김성훈(특별)
10월 17일 별세.
향년 93세. MBC
상임감사, 정수장
학회 사무국장, 문
화관광 사장. 1991
년~1995년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역임.
임정봉(기술)
10월 26일 별세.
향년 82세. 1964
년 입사. 송출기술
국 R주조 근무, 제
작기술국 등 근무. 1997년 퇴사.



전한호(관리)
10월 22일 별세.
향년 89세. 1971년
입사. 총무국 부국
장. MBC프로덕션
팀장. 강릉MBC 상
무 역임. 1990년 퇴사.

김승월 칼럼

감사



김승월

같은 일 하고도
달리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대학 시
절 이야기다.
강의실 한편이
오물로 심하게 더
럽혀져 있었다.
나이 지긋한 남자
청소부가 치우러 들어왔다. 수
업을 잠시 중단하고 같이 지켜봤
다.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듯 이
마를 찌푸리며 해냈다. 보는 우
리도 민망했다. 청소부가 나가
자 교수님이 혼잣말처럼 한 말씀
했다. “존경을 받아야지, 동정
받지 말고”.

힘한 일이나 거친 일 하는 모
습 보고 불쌍해하는 건 인지상정
이다. 하지만 그런 일마저 나서
서 해내는 모습을 보면 달리 생

각하게 된다. 존경할 수도 있다.
그 일이 있는 후로 허드렛일이
나 막일할 때마다, 두 개의 잣대,
‘존경’과 ‘동정’을 떠올린다. 내
일하는 모습이 측은하게 비쳐져
동정을 사지나 않을까? 하찮은
일이지만 당당히 일한다고 눈여
겨볼까? 지금 내가 일하는 사무
실에 한동안 70대 할머니가 청
소 담당이었다. 늘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하곤 했다. 나이 든 분
이지만, 마음 편하게 구질구질
한 부탁도 드렸다. 그리 일 시킨
것은 그분이 한 말이 있어서다.
“이 나이에 이렇게 나와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죠.” 진심 어린 말
로 들렸다. 처지를 탓하고 불만
스럽게 일하면 보기 불편하다.

하찮은 일이지만 소중하게 여
기고 감사하며 일하니 존경스럽
지 않은가. 감사는 행복의 열쇠

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피해
의식에 젖어있고 쉽게 분노하기
때문이란단.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화내지 않고 피해
의식에 젖지도 않는단다. 감사
란 ‘세상의 모든 행복과 이로움
의 원천’이라고도 했다. 독일의
문호 괴테도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일수
록 적게 감사하고, 덜 누리는 사
람일수록 더 감사해 한다.” 새겨
불 만한 말이다. 하나나 둘 낱아
서 귀하게 키우니 요즘 어린이들
이 감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까. 원하는 것을 쉽게 가지는 어
린이는 감사할 줄 모르고 금세
버릇이 없어진다. 원하는 것을
조절해줘야 감사를 배운다.
풍족한 데서 더 보태질 때보다

부족한 데서 채워질 때 감사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해하는 사람
보면 뭔가 더 해주고 싶다. 기껏
선물했더니 건성으로 감사해하
거나 덤덤하면 민망해진다. 괜
히 선물했나 생각도 든다. 내가
해준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 나
역시 기분이 좋다.

다음에도 또 주고 싶어지게 된
다. 그래서 감사하면 할수록 감
사할 일이 늘어난다는 ‘감사의
법칙’이 있나 보다 따져보면 감
사할 일이 너무 많다.

온갖 경우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리 살아 숨쉬니 감사하지 않은
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도 감
사하니 일상의 소소한 모든 것이
감사하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불행마저도 감사하며
받아 들인다. 자신을 돌이켜 보
는 좋은 기회로 삼기도 한다.

배려配慮 유감有感



박흥영(편제)

◆조수미: 2010년 12월 중순, 세종문화회관 「除夜콘서트」의 프리마 돈나로 조수미가 결정됐다. 수많은 팩스와 이메일이 서울과 로마를 오고 갔다. 조수미는 구성이 재미있다고 구체적인 구성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사랑의 노래들을 빛의 3원색 RGB로 풀어가는 2010 「除夜콘서트」의 구성은 이랬다.

*오프닝-웨버(오페라의 유령)와 나훈아(사랑은 눈물의 씨앗)의 변주곡 메들리(파이프 오르간) *RED-뜨거운 열정, 카르멘, *BLUE-사랑의 슬픔, 펠랑폴리 *GREEN-사랑의 꿈, 로맨틱 *클로싱(앵콜)-사랑은 RGB 그 모든 것 *제야이벤트-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모든 관객들 핸드폰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기, 조수미 외 전출연자 축배의 노래. (조수미는 RED와 GREEN섹션, 앵콜과 피날레)

조수미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연출자와 동반자의 자세로 공연에 임했다. 12월 31일 저녁 5시, 세종무대에서의 최종리허설 시작 전 조수미가 나를 찾았다. “연출님, 이 드레스 입을까 하는데 어때요?” 진회색에 보석이 박힌 드레스였다. “혹시 다른 드레스는 없을까요?” “물론 있죠. 공연에 맞추려고 6벌이나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신 앙드레김 선생님께서 주신 것이라...” 나는 정중하게 말했다. “그 드레스는 리셉션 때 좋겠네요. 무대와 객석이 멀리 떨어진 대형무대에서 월드 프리마 돈나가 입을 드레스는 아닙니다” 조수미가 드레스를 갈아입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난 시간은 불과 3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의 여왕이 입을 드레스입니다” 조수미는 만족해하며 리허설에 임했다. 사실 그녀가 어떤 드

레스를 선택하든 대세에 큰 지장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조수미니까. 여러 예술가들과 공연을 했지만 그녀처럼 연출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출연자는 처음이었다. 공연은 초대박이었다.

귀가하려는 내 손목을 세종공연본부 팀장이 붙잡았다. 끌려간 곳은 vip대기실. 이미 가득 차 있는 관계자들 가운데 조수미와 vip 서넛이 카메라 앞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다. 조수미가 나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선생님 이제 오셨네요. 오늘 제일 수고하신 분이 왜 여기 계세요? 이리 오세요” 2011년 새해 벽두 조수미와의 포옹은 따뜻했다. 다음날 로마에서 메일이 날아왔다. “박 선생님, 이번 공연은 공연을 본 모든 이들이 감동하고 감탄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박 감독님의 경험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공연이기에 제겐 더욱 특별했습니다. 2010년을 보내고 2011을 같이 맞게 되어 감독님과 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멋진 추억이지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멋진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제 공연에도 연출을 해주시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umi”

조수미는 뛰어난 예술가 이전에 훌륭한 인격체다. 관객과 제작자와 스태프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가인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배려가 그녀의 그녀를 만들었다.

◆신영옥: 지난 해 연출한 조수미의 除夜콘서트가 대박이 나자 세종측은 올해는 소프라노 신영옥과 하루 2회 공연으로 하자고 내게 요청했다. 2011년 12월 31일, 저녁 5시의 1회 공연을 끝낸 나는 조명감독, 무대감독과 약간의 수정작업을 마치고 출연자 대기실로 향했다. 밤 10시 반에 시작하는 2회 공연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연출자를 보자 소파에 길게 누워있던 신영옥은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매우 힘들어했다. 함께 있던 그녀의 가족들도 걱정스런 표정이다. 깜짝 놀라 묻는 내게 그녀는 먹은 게 체한 것 같은데 괜찮다고 말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1회 공연은 최종리허설의 성격이 강하고 정작 중요한 2회 공연이 남았는데 오늘의 프리마 돈나가 고통스러

워하니 실로 큰일이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누워있는 그녀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녀의 팔을 잡고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힘을 주어 주무르기 시작했다. 토요일 저녁이라 병원과 약국도 문 닫았으니 다급한 김에 컷등으로 주워들은 민간요법을 동원한 것이다.

몰입해서 주무르기를 얼마나 했을까. 문득 어디선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아버지였다. 맞은편 의자에서 못마땅하고 불편한 심정이 확연히 들어나는 눈길로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다. 나로서는 오직 공연을 위해, 출연자를 돕기 위한 순수한 배려였지만 그는 그저 ‘한 마리의 음흉한 늑대’로 단정하고 있는 듯 했다. 그제야 내게 팔을 맡기고 누워있는 사람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주역가수이며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미혼여성이라는 사실이 새삼 상기되었다. 등골에서 진땀이 흘렀다. 여성의 어깨만 만져도 성추행으로 몰리는데 맨몸의 여성 팔을 댄 주무르듯 했으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할지 내심 난감해하는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렸다. “아휴 신기하게 정말 속이 내려간 것 같네요. 연출선생님 고맙습니다” 환한 미소로 일어서는 천사의 얼굴엔 화색이 돌았고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당연히 2회 공연도 성공리에 마쳤다. 자신을 배려하려다 난처해진 연출자를 위한 그녀의 재치 있는 배려와 아버지의 서늘한 눈빛은 세월이 흘러도 기억이 선연하다.

◆호세 카레라스: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은 2014년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이었다. 1일차 공연일인 토요일, 전반부 공연을 마친 인터미션 시간에 연출석으로 캐나다인 음악감독이 급히 찾아왔다. 호세가 후반부 레퍼토리를 모두 칸초네로 변경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총연출자인 내 의견을 물었다. 소화하기 힘든 오페라 아리아 대신 쉬운 칸초네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나는 관객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클래식 애호가들은 오페라 아리아에 비해 칸초네 같은 대중가요를 격이 낮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다. “비싼 티켓을 구입한 관객들이 프로그램에 고지된 레퍼토리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한국 클래식 애호가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칸초네가 쉬



운 곡들이긴 하지만 오케스트라와 리허설도 못했는데...” 결국 호세의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정대로 오페라 아리아를 모두 소화하고 1일차 공연은 끝났다. 관객들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열창하는 호세의 아리아에 만족해했다.

2일차 공연일인 다음날 일이 터졌다. 공연시간이 임박하도록 호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주최 측(외부 제작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호세의 목 상태가 좋지 않았었는데 어제 공연을 마친 후 밤새 급성후두염에 걸렸고 며칠간 절대휴식 처방이 나왔다고 했다. 어제 저녁 세종무대에서 리허설 때 만났던 호세의 모습을 상기했다. 잔잔한 미소로 연출자에게 인사하던 호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병약해 보였고 악수하는 손은 힘이 없었다. 백혈병을 이겨내고 로마에서, 파리에서 파바로티, 도밍고와 어깨를 나란히 열창하던 은빛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아니었다.

결국 2일차 공연은 호세가 나타나지 않은 채 무산되었다. 호세는 절반의 출연료만 챙긴 채 사과 한마디 없이 스페인으로 돌아갔고 제작사 대표는 잠적했다. 세종회관과 공연에 참여했던 외부 조명팀 영상팀 오케스트라 등 스태프들의 제작비 관련 어지러운 상황은 기술을 생략한다. 누군가는 내게 제작사에 대한 법적인 절차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지만 나는 그냥 없던 일로 마무리했다.

만약 그때 관객보다 출연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호세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2일차 공연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까. 호세에 대한 나의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약간의 자책도 있지만, 분명 한 것은 공연을 위한 몸 관리는 오히려 예술가 자신의 몫이다.



조수미씨와 함께

인터뷰

‘세진이 엄마’로 더 유명한 정보영(ANN)원장



규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부산에서 제일 큰 스피치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보영(ANN)회원은 요즘 원장님이나 교수님이라는 호칭 대신 ‘세진이 엄마’로 더 유명하다. 국제학교를 배경으로 최근 방영된 드라마 ‘하이클래스’에서 열연을 한 둘째 따님 박세진 양의 인기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연일 바쁘게 살고 있는 정 회원을 부산에 있는 ‘정보영스피치’에서 만났다.

▶스피치학원은 몇 년째 운영 중인가요.

2004년에 개원했으니까 햇수로 17년째네요. 1986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1993년에 결혼 하면서 퇴사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때문에 1998년 부산으로 옮겨왔는데, 서울MBC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지역방송(KNN)에서 프리랜서로 방송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때때로 대학과 공기업 같은 곳에서 특강 요청이 있으면 스피치에 대한 강의도 하곤 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곳 사람들에게는 스피치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크지 않았어요. 사투리를 쓰는 지역이다 보니 표준말이나 발음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취업면접이나 발표를 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걸 하다 보면 노력해서 고치지 않으면 시정이 안 되는 발음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스피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해서 자연스럽게 학원의 필요성이 생긴 셈이죠.

▶수강생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무래도 아나운서, 리포터, 기상 캐스터 등 방송(홍쇼핑 포함)계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과 취업면접을 하려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그쪽에서 일하려는 젊은이들이 늘었구요.

그 밖에 영업사원이나 안내원, 민원담당자 등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의사나 변호사처럼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습

니다. 스피치 뿐 아니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는 젊은 엄마들이 찾아와 상담을 받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른 고충도 있겠죠.

그럼요.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이 지역 사투리는 비교적 장음長音이 부족합니다. 된 발음도 심한 편이구요. 그래서 특히 고저장단高低長短에 대해 집중 훈련을 합니다. 또 이러한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입 모양 뿐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 신경 쓰게 되는데요,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경상도 분들은 대체로 대화할 때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없는 편입니다. 그냥 툭 던지는 대화를 하죠. 그래서 스피치 교육이지만 표정 관리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ㅎㅎ

▶스피치 교육 뿐 아니라 각종 취업 정보 수집에도 관심을 두셔야겠네요.

네, 따로 취업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지만, 취업을 원하는 수강생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자연히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강의를 나가게 되면 ‘아, 이런 곳에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기회가 되면 거기에 맞는 수강생을 추천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방송사나 일반 직장이나 각자의 취향과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잘 기억해줬다가 필요로 하는 수강생들에게 안내도 하구요.

▶대학에서 강의도 오래 하셨죠.

어쩌다 보니 부산대학교에서만 18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동서대학교에서는 지금도 10년 넘게 하고 있구요. 제 체질이 강의 용인가 봐요. 제가 썩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도 수강하신 분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기회를 또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ㅎㅎ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강의 주제는 스피치에 대한 것이지만, 저는 단순히 말에 대한 강의만 하는 건 아니고 틈날 때마다 ‘자기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것’을 강조합니다. ‘자기 발견’을 열심히 해서 ‘자기를 상품화 시키는’ 즉 자기를 잘 포장하는 기술을 연마하라고 역설하는데 그 부분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CL성과 연구소’라는 이름의 조직을 통해 제 오빠랑 같이 오랫동안 기업마케팅 분야에서 활동하며 익혔던 내용이라서 자연스럽게 스피치와 연결을 시킨 것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신선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원에서 배출한 인력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따로 집계해본 적은 없는 데... 수강생 중 원했던 대로 잘 된 사람도 많지만 도중에 그만 둔 사람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 개인 교습도 있었고...그런 걸 감안한다면 대략 1,500여명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에 비해 수강생이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사태와 관련 있기도 하지만 근래 부산 경제가 많이 침체돼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시장도 좁아졌구요. 다행인 것은, 예전에는 ‘스피치 교육은 무조건 서울에 가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인식이 ‘부산에서 받아도 손색이 없더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애써온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탤런트 따님 자랑을 듣지 않을 수 없네요.

아유, 자랑은 무슨... 제가 딸만 둘인데 둘째가 세진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 지금 4단인데요, 시합에 나가 상도 많이 받았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몸도 날씬하고...외국어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큰딸이 어느 날 ‘너 슈퍼모델 한번 나가 봐라’고 권했나 봐요. 세진이가 저 닮아서 성격이 털털하고 단순한데 그때까지도 모델이 뭔지 관심도 없다가 언니가



따님 박세진(탤런트·모델)

그렇게 얘기하니 ‘응, 해볼까?’하고 응시했는데 합격했어요. 그래서 2013년 고등학교 2학년 신분으로 패션모델이 된 거죠. 그러다가 영화배우 김윤석씨가 우리 애를 좋게 봤는지 자기가 감독, 주연을 하는 ‘미성년’이라는 영화에 출연시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애는 연기가 뭔지도 모른다’고 하니 ‘자기가 연기를 가르쳐서 쓰겠다’고 하도 졸라서 ‘그럼 해보라고 했죠.’

촬영하는 녀 달 가까운 기간에 얼마나 혹독하게 연기수업을 받았는지 생각보다 연기를 곧잘 하더라구요. 그 이후 TV드라마 ‘마녀보감’ ‘하이엔나’에도 출연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지 ‘하이클래스’ 제작진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에 출연하게 됐죠. 녹화는 이미 끝났는데 방송은 아직 하고 있나 봐요. 한 작품을 끝내고 나면 그 배역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새 작품 하자고 제안이 왔지만 아직 확정은 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연기공부와 충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님이 어떤 연기가 되길 원하세요.

자기가 선택한 일이니 만큼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나운서나 연기자나 대중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직업인지라 저는 딸아이를 너무 이해해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연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우회 선,후배님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담 편집장〉



사우회 30년과 나



이용구
(부회장, 업무)

1980년 신군부 세력은 유신정권에서 잘 순치馴致된 언론을 더욱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방송, 신문, 통신을 통·폐합하고 '언론사 자율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수백 명에 이르는 언론인을 강제 해직시켰다. (주)문화방송 경향신문에 새로 임명된 이진희李振義 사장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사회정화작업에 언론계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같은 해 6,7월 이사급 2명, 국장 2명, 부국장 2명, 위원 22명, 부장 13명, 차장 8명, 사원 58명 등 111명을 무더기 해직했다. (문화방송 社史 참조) 당시 업무국 업무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나는 영문도 모른 채 7월에 해직의 쓴맛을 겪었다.

▶업무국 폐지

1981년 4월에는 언론기본법에 따라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통합된지 6년 8개월 만에 (주)문화방송과 (사)경향신문으로 각각 분리, 독립했다. 그 결과 업무부문의 신문영업국이 없어졌고, KOBACO(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발족으로 업무부문에서 방송광고 영업을 하던 본사와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전주지사, 대전지사의 영업 사원들과 운행 사원 및 관리 사원 대부분이 공사에 편입되는 미증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강화도 시절

나는 1980년 강화시장(주)의 관리이사로 영입되어 8월부터 강화도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강화도는 나중에 조선왕조 25대 임금 철宗이 된 강화도령 이원범이 그 아

버지(이 광)가 역모로 몰려 강화에 유배됐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등 살아있어도 산 목숨이 아니었지만, 천성이 온순하여 산과 바다를 돌아다니며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렀다는 사연이 있는 곳이다. 강화도에서 일하는 동안 때때로 그를 떠올리면서 억울하게 당한 내 해직의 아픔을 이기고자 노력했고 상처 난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

▶쓰리잡 인생

1981년 3월부터는 성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연구과정에 적을 두고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라디오국에서 근무하는 류제국柳濟國 선배를 교내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는 보험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했다. 그를 통해 보험감독원 간부를 소개받아 보험연수원 교육을 받고 보험대리점 자격증을 취득하여 두잡two job족이 됐으며, 1983년 10월에는 (사)대한인쇄문화협회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던 중 1984년도에 국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제1회 부동산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쓰리잡 족이 됐다.

▶문경회 설립

1986년 12월,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에서 광고영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모여 동우회인 문경회文京會를 창립하고 세종호텔 무궁화홀에서 170여명의 회원 중 98명이 참석해 창립총회를 열어 회장에 우윤근, 부회장에 김대수, 천기정, 이태림, 감사에 권순복, 최승우를 추대했고 나는 간사로 선임됐다. 이후 문경회는 해마다 정기총회를 개최해왔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사우회 태동

1989년 3월, 본사 사업국으로 복직되어 사업위원으로 일하게 됐다. 그리고 그해 연말쯤 故이만우李萬雨, 김인규金仁圭 두 분이 오찬을 하자고 하여 만났더니, 가칭 '문화방송 사우회'를 설립하기 위해 작업중인데 업무부문 전직 사원 명단

을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명단을 좀 작성해달라는 것과, 사우회의 경비 조달을 위해 법인 보험대리점을 설립

해야 하므로 내가 취득한 보험대리점 자격증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 받았다.

▶사우회와 문화보험 설립

업무부문 전직 사원 명단이야 문경회 회원 명단 중 본사에 재직하던 방송영업국 사원과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 5개 지사 사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주면 되지만 내가 소지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자격증의 대여는 MBC 복무규정에 저촉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우회 설립 준비 중인 사람들 중 3~4명을 선발해 보험연수원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문화보험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이때부터 나는 현직 사원으로 유일하게 사우회 설립에 보조 창립 멤버로 참여하게 됐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므로써 사우회가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에 자긍심을 갖고 사랑하게 됐다.

▶사우회 근무

현직에 있으면서 사우회와 인연을 맺긴 했지만, 정작 내가 사우회 정회원이 된 것은 MBC아카데미 이사로 선임된 2001년 3월이었다. 그리고 MBC아카데미를 퇴임하던 2004년 2월 사우회 업무부문 이사에 선임됐고, 그해 7월에는 상근 총무이사로 부름을 받았다. 상근하는 기간 동안 기억나는 일은, 김민식 회장의 대통령 표창 수여와 사우회 소식지 창간, 홈페이지 개설, 동호회의 활성화, 사무체계의 확립, 제 규정 정비, MBC 창사 기념 일등미 지급 등이다.

▶사우회 30년

이 기간 동안 사우회의 기틀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우리나라 언론사 중 제일의 친목단체로 업그레이드됐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 전까지 우리들의 고질병이었던 각 부문 간



91년도 사우회 정기총회

의 갈등과 반목을 원칙과 상식, 공정과 정의의 차원에서 화합과 사랑으로 변화 시키고, 감동적이며 역동적인 안식처로서의 사우회를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신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우회 30년 역사를 되돌아 보면 전반부는 故박근숙, 우윤근, 김민식 회장님이, 후반부는 강영구, 김수량, 이연현, 차인태 회장님이 이끌어 오시면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훌륭한 거목으로 사우회를 성장시켰다.

▶앞으로 30년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안식처인 사우회는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 바로 재정에 관한 문제다. 사우회 재정의 원천인 문화보험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회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어떻게 더 주느냐로 고민했지만, 이제는 해마다 줄어드는 재정 수입으로 어떻게 경영의 밸런스를 맞추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재정의 재창출화'다. 우리 후배들이 자랑스러워할 안식처인 사우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우리 회원들은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봉사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모든 것은 우리들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면 위를 보라"는 유대인들의 격언을 떠올린다.

이번 임기를 끝으로 나는 사우회 임원직을 떠나지만 앞으로도 사우회 회원으로서 문화방송 사우회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故 이만우씨, 김인규씨

카메라로 맺어진 인연



전인하(보도)

카메라와 나의 첫 인연은 외할아버지께서 찍어 주신 사진 한 장이다(사진1). 6살 무렵 동생의 손을 잡고 비원 경내를 내려오는 모습으로, 사진작가전에 입선하신 기념으로 찍어 주신 할아버지의 사진은 어린 나에게 카메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키워줬다. 카메라는 훗날 내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성인이 되어 카메라를 직업으로 다루면서 전설적인 보도 사진가 로버트 카파(Robert Capa)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은 내게 보도 사진의 긴박감과 인간 내면의 결정적인 순간을 관찰하게 했다.

MBC 카메라 기사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생방송 뉴스팀에서 근무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를 꼽으라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다. 생방송 뉴스팀 PD의 역할은 대통령이 외국을 공식 방문할 경우, 생방송 준비와 프레스센터 송출을 운영하는 일이다. 1996년 9월, 김영삼 대통령 공식방문 사전준비팀으로 칠레 산티아고에 가게 됐다. LA를 거쳐 산티아고까지 30여 시간의 지루한 비행길이었다.

사전에 현지 분위기를 취재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 외교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임무였다. 당시만 해도 청와대 본진 이외에 외곽팀을 각 사자가 구성해서 해외 순방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취재 방송이 있었고, 순방 이후에는 순방 성과와 외교적인 노력 등을

정리해서 TV매체로 혹은 신문으로 전하던 때였다.

칠레는 우리나라의 해양 수산업 전진기지가 있고, 태평양 연안 국가 중에서도 수산업의 비중이 컸던 만큼 외교적으로 서로 관심이 많았다. 남미 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인 칠레는 교민의 수는 많지 않았으나 섬유산업 위주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있었고, 원산지 생산량의 규모가 공산품에 비해 많았다. 칠레 국영방송과의 회의를 마친 우리 일행은 프레스센터 내에 편집 장비와 송출시스템을 설치하고 점검했다. 외곽팀 송출의 역할은 대통령 도착 전 순방 국가를 소개하고,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협의의 내용과 교민들의 반응을 전하며, 양국의 우의와 우리 교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칠레 교민회장을 비롯해서 교민 모두는 우리나라 대통령 방문으로 한껏 들뜬 분위기였다. 현지 공보관과의 실무회의가 끝날 무렵 교민 가운데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00신문사 기자 출신 임00입니다. 80년대 해직기자들의 현실 앞에서 해외 이민을 결심했고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시간 여유가 생기는 대로 다시 한번 들르겠다”고 말하곤 헤어졌다. 며칠 후 다시 만난 임 선배는 머나먼 칠레 산티아고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언론통폐합 당시 편집국 선배들이 해직되고 사내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6개월 시한부로 휴직을 하고 산티아고에 사는 누님댁을 방문한 길에 정착을 결정하게 됐고, 지금은 주얼리 샵을 운영하는데 한국, 미국, 중국을 오가며 소규모로 무역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곳은 독일계 이민자들이 많아 교육, 군사, 외교 등이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래서 그런지 앤틱 샵(Antic shop)에는 독일 카메라의 자부심인 라이카 카메라가 많이 나와 있다는 설명에 귀가 번쩍 뜨였다. 이미 카메라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어느 일요일에 잠시 짬을 내어 앤틱 샵을 방문했는데 휴일이라 영업을 하지 않았

다. 월요일부터는 프레스센터가 운영되고, 수요일 오후에 브라질리아로 출발해야 하는 일정이라 더 이상 짬을 낼 수 없어 못내 아쉬웠다.

임 선배가 그런 나의 맘을 아셨는지, 그간 본인이 수집한 물건들을 보여주겠다면서 일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그 댁으로 가기 전 코디로부터 ‘어쩌면 수집된 카메라를 살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반가운 말을 듣고 약간의 달러를 준비했다. 임 선배 댁을 들어가니 실내에 온갖 축음기로 장식된 실내 인테리어가 마치 1940년대의 독일 가정 분위기를 자아냈다. 꺼내놓은 카메라와 렌즈는 30여평 되는 마루바닥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 했다. 고가의 물건부터 가격이 저렴한, 상태 좋은 카메라를 보고 있자니 앤틱 카메라 박물관에 와있는 기분이었다.

그중 전설적인 카메라맨들이 포토저널리즘을 자신만의 눈으로 표현할 때 애용하던 ‘라이카R 슈퍼 앵글론(Super angulon) 21mm’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너무 비쌀 것 같아 1941~1942년도에 약 20,500대가 생산된 라이카IIIc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걸 꼭 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임 선배가 나를 지그시 쳐다보더니 “당신에게 돈 받고 팔 생각은 없으니 그냥 선물로 드릴게. 나중에 서울에서 만나 술이나 한잔 사요”했다. ‘그럴 수는 없다’고 막무가내로 봉투를 내밀었지만 그는 끝내 돈 받는 것을 사양했다. 참 난감했고 한편으로 ‘내가 경솔한 짓을 했나’란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카메라를 손에 넣은 것만은 뭇 듯이 기뻐했다.

다음날 오후 프레스센터 업무가 일찍 마무리되어 5시간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산티아고

는 ‘사계절이 공존하는 지구 유일의 나라’라던 임 선배의 말이 떠올라 카메라 화질 테스트도 할 겸 바다로 향했다. 수평선 너머 일본과 한반도를 마주한다는 태평양 바다는 안데스산맥으로 넘어가는 석양과 함께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라이카IIIc 필름카메라는 셔터 우측 레버를 조금씩 돌리면 필름이 장전되고, 감는 동안에 구도를 잡는 묘미가 있다. 설산 안데스를 배경으로 펼쳐진 풍광과 붉은 산타 델 마르(Santa Del Mar) 해변을 흑백 필름으로 찍는 호사를 누렸다.

97년 겨울, 임 선배가 서울을 방문했고 카메라로 맺어진 인연은 내게 늘 반가운 기억 이상으로 발전되었다.(사진2) 2004년 APEC 행사가 있어 나는 다시 한번 칠레 산티아고를 갈 수 있었다. 두 번째 방문이고 임 선배가 계셔서인지 먼 거리가 가깝게 느껴졌다. 청와대에서 풀풀중계를 정할 때는 해외순방과 국내 풀을 따로 운영하며 청와대 간사와 공보가 정한 순서에 따른다. 나는 사전에 임 선배를 통해 코디와 숙소, 렌터카, 장소 섭외 등을 일사천리로 준비한 덕분에 이번 출장은 마치 해외에 사시는 형님댁을 방문 하는 동생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다.

임 선배는 무역 일로 서울 방문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얼마 전 영화를 전공한 아들을 불러 분신과도 같았던 카메라들을 모두 물려줬다.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질 앞날에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진1) 여동생 꽃숙이랑



(사진2) 임선배님과 같이

〈북 리뷰〉

강효백 교수의 저서 〈두 얼굴의 무궁화〉



정길 화(편제)

이 책은 독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긴다. ‘국화國花가 무궁화無窮花’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애국가에 나오는 ‘무궁화 삼천리’를 필두로 동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에 이르도록 ‘국화 무궁화’는 어린이부터 뼈에 아로새길 정도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무궁화는 일본이 사랑하는 신화神花로 사무라이 정신의 표상이라고 한다.

무궁화의 ‘무궁’은 일본 텐노의 무궁한 팡창을 의미하는 ‘천양무궁天壤無窮’으로 일본 신사의 부적이 한국의 나라꽃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옛시조 3355수 중 무궁화를 노래한 작품이 단 하나도 없고, 반면 일본 하이쿠俳句에서 무궁화를 노래한 것이 380여 수나 된다니. 강 교수가 소개하는 나라奈良에서 에도江戸까지 일본 문화와 역사 속의 무궁화를 보면 이 꽃이 일본의 국화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다.

어떻게 이런 집단착시와 오류가 발생한 것일까. ‘근역權域’은 국어사전에 ‘무궁화가 많이 피는 땅이라

는 뜻으로 한국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기록과 작품에서 ‘무궁화는 한국의 국화’임을 반복적으로 환기해 왔다. (최근 상재된 신라 마의태자麻衣太子를 소재로 한 이상훈 작가의 픽션소설 〈김의 나라〉에서도 무궁화는 10세기 시대 배경에 마의태자와 낙랑공주의 사랑을 잇는 주요 모티브로 등장한다)

강효백 교수는 역사적 기록들을 고증하면서 “근역은 일본의 이칭異稱”(1926년 시대일보)이며 “무궁화 중 히노마루 품종은 멀리서 보면 일본의 국기처럼 보인다”(야후 재팬) 등의 전거典據를 하나씩 제시하며 마침내 “무궁화는 꽃나무로 변장한 일본의 국기이자 군기다. 일본인은 일장기와 육일기를 흔드는 대신 무궁화를 심고 가꾸고... 한편으로 타국으로 은밀한 확산을 꿈꾼다”는 결론을 내린다.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일이다.

돌이켜 보니 무궁화가 우리의 국화라면서 일방적으로 ‘존중’을 강요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었던 것 같다. 오랜 세월 누적된 기만과 착각으로 한국민이 사실상 집단 최면상태에서 무궁화를 한국의 상징으로 오인하고 또 이를 신봉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면 저자의 말대로 천동

설 시대에 지동설을 접하는 듯한 충격에 빠질 일이다.

저자는 원래 ‘무궁화의 나라’인 부상국扶桑國 일본이 한국을 무궁화 지역 즉 ‘근역權域’으로 조작한 목적은, 무궁화를 한국의 나라꽃으로 만들어 한국 병탄과 내선일체 작업의 매개체로 삼으려는 제국주의 책략으로 파악하고 있다(p.99).

특히 일제 당시 조선은행권 지폐에서 무궁화 문양이 채택된 것은 명백한 물증 중의 하나다. 그의 결론은 애국가로 향한다. 무궁화의 문제가 이렇진대 애국가의 ‘무궁화 삼천리’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여기에 나오는 ‘삼천리’ 또한 오류와 허위로 점철되어 있어 별도의 후속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오래 전 언론인 해외연수 시절에 강효백 교수를 베이징에서 만난 인연이 있다. 당시 주중 현직 외교관으로 중국통인 그가 낸 〈차이니스 나이트〉, 〈중국인의 상술〉 등의 저서들은 연수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중요한 선행학습 교재가 되었다. 이후에는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신청 공위公署에서 학문적 인간적 교분을 나누었다.

알고 보니 그가 ‘윤봉길 의사 체



포 당시의 사진이 일제의 조작임’을 입증한 주인공이었다.

귀국해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PD수첩〉 등에서 중국 관련 내용 제작 시에 자문과 인터뷰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영고삼’(영원한 고3)이라는 뜻, 끝없는 학문적 정진을 다짐하는 자칭 별명)을 자임하는 강 교수의 박람강기博覽強記와 맹렬저작猛烈著作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의기충만한 다혈질의 그는 인터뷰 시에 간혹 흥분하면 나중에 편집할 때 에디팅 포인트를 찾기 어려운 애로를 ‘선사’했던 기억이 새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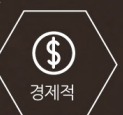
문화방송(MBC) 사우회

동화인협동조합
DONG HWA IN COOPERATIVE

문화방송(MBC) 사우회의 상조는 동화인협동조합과 C&G라이프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처럼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100% 후불제 상조



C&G라이프는 국가공인 장례지도사가 장례를 책임지는 의전 전문 회사입니다.

사우회 상조관련 문의
010-8761-6643전국 24시간 대표번호
1544-4744